


## 플러스 파킹통장 상품설명서

- ◆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대출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관련 규정에 의거, 저축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**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**입니다.
- ◆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는 경우,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**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**
- ◆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.
- ◆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약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, **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는 통장이나 증서 또는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조회에 따릅니다.**

구 분	내 용					
상품명	• 플러스 파킹통장					
가입대상	• 개인					
가입금액 및 기간	• 제한없음					
가입채널	• 모바일뱅킹(Fi(파이)) 내 비대면계좌개설 (최근 1개월 내 요구불예금 개설이력이 없는 등 비대면계좌개설을 위한 조건충족 필수)					
이자지급시기	• <b>매월 셋째주 토요일</b> 을 결산기준일로 하여 결산기준일 익일에 원금에 가산 • 결산기준일 익일부터 결산기준일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고, 매일 최종잔액에 대하여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로 계산					
예금자 보호여부 <b>[해당]</b>		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, 보호한도는 당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"최고 5천만원"이며,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.				
제한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계좌에 압류, 가압류,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</li> <li>•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</li> <li>• 1인 1계좌</li> </ul>					
이자율 (22.10.20 현재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기본이율 적용</li> <li>• <b>본 상품은 변동금리이므로, 이율이 변동되는 경우 변경일부터 변경된 이율이 즉시 적용됩니다. 또한 변경일 이전 가입한 계좌를 포함하여 전 계좌에 적용됩니다.</b></li> </ul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d style="width: 50%;"><b>(연세전)</b></td> <td style="width: 50%;"><b>플러스 파킹통장</b></td> </tr> <tr> <td>기본이율</td> <td>3.80%</td> </tr> </table>		<b>(연세전)</b>	<b>플러스 파킹통장</b>	기본이율	3.80%
<b>(연세전)</b>	<b>플러스 파킹통장</b>					
기본이율	3.80%					
원천징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일반과세대상자는 이자율이 계산된 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 세율(15.4%*)을 공제하여 지급 (이자소득의 14% + 이자소득세의 10%(1.4%))를 징수</li> </ul>					
세제혜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</li> <li>• 가입대상 : 만65세 이상의 거주자,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,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, 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,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, 5.18민주화운동 부상자</li> <li>※ '20.1.1. 이후 가입(자동재예치) 분부터 「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(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)」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,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</li> <li>※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</li> </ul>					

